

V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3년 9월

전망과 정책과제

| | |
|-----------------------|----|
| 제1장 국내경제동향 | 5 |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29 |
| 제3장 국내경제전망 | 41 |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51 |

부록

| | |
|--------------|----|
| 주요경제통계 | 55 |
|--------------|----|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허찬국
배상근
김창배
서준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2. 국제금융시장: 금리 및 환율
3. 원자재가격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부록 주요경제통계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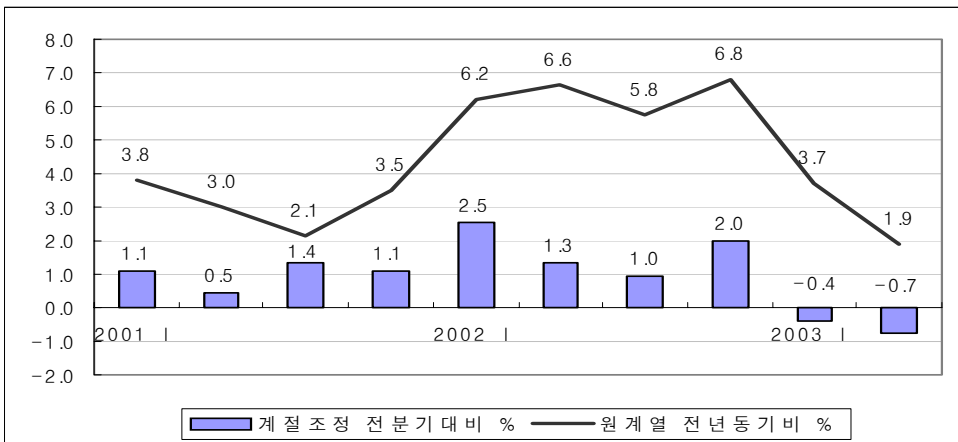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침체국면

- 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성장
 - 실질GDP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1/4분기 3.7%에서 2/4분기에는 1.9%로 하락
 - 계절조정 전분기증가율은 1/4분기(-0.4%)에 이어 2/4분기(-0.7%)에도 마이너스

<그림 1> 실질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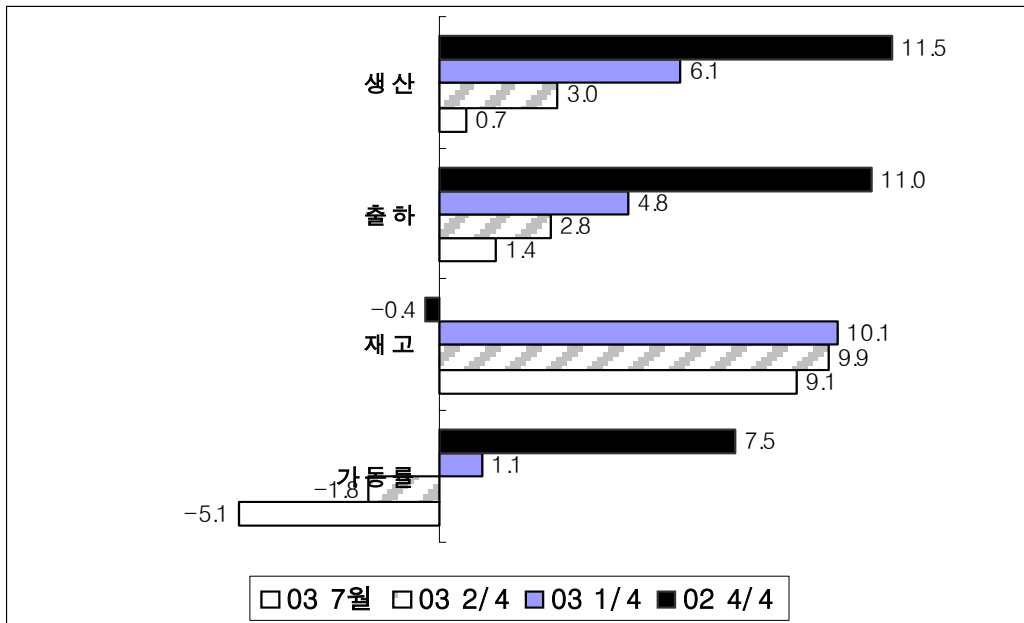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산업경기 위축현상이 2/4분기 이후 더욱 심화

- 생산증가율은 금년 1/4분기 6.1%에서 2/4분기에는 3.0%로 크게 둔화한데 이어 7월중에는 0.7%로 급락.
- 제조업가동률도 2/4분기중 감소세(-1.8%)로 반전되었으며 7월중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
- 반면 재고는 약 10%의 증가세 지속

<그림 2> 산업활동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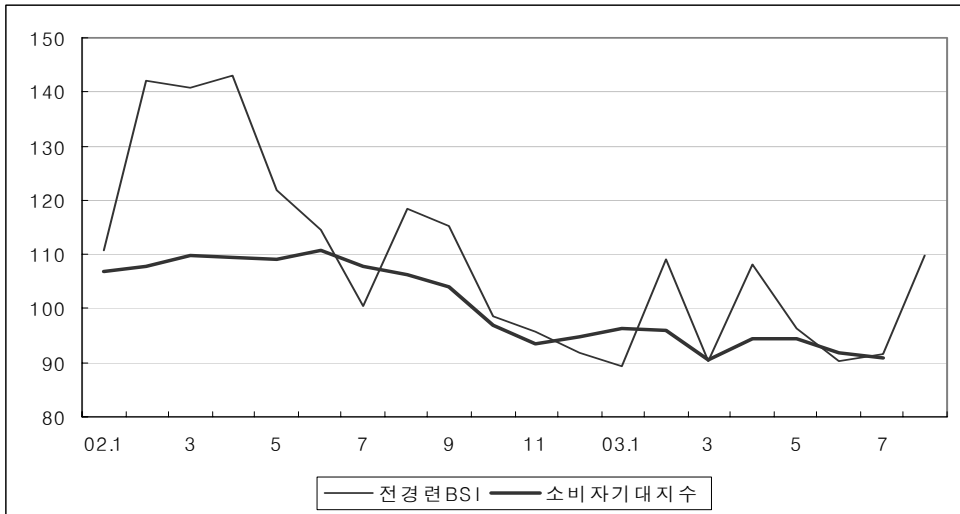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상반기중 경기침체 현상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대외적으로는 미·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그리고 SARS 등
- 대내적으로는 SK글로벌사태와 카드사 부실 문제, 빈번한 노사 및 노정 갈등

<그림 3> 주요 경제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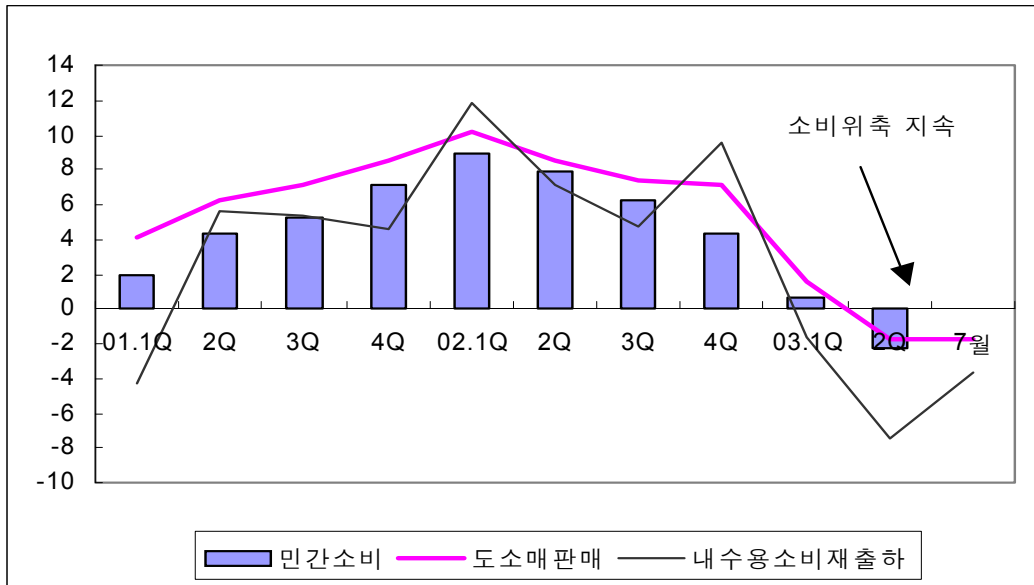
주: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후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소비위축 지속

- 금년 들어 소비위축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1/4분기 0.9%에 그친 민간소비 증가율이 2/4분기에는 감소세(-2.2%)를 보임
 - 도소매판매액은 3월 이후 연속 5개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도 둔화되고 있지 않음
 -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도 2월 이후 연속 6개월 감소세를 보임

<그림 4> 주요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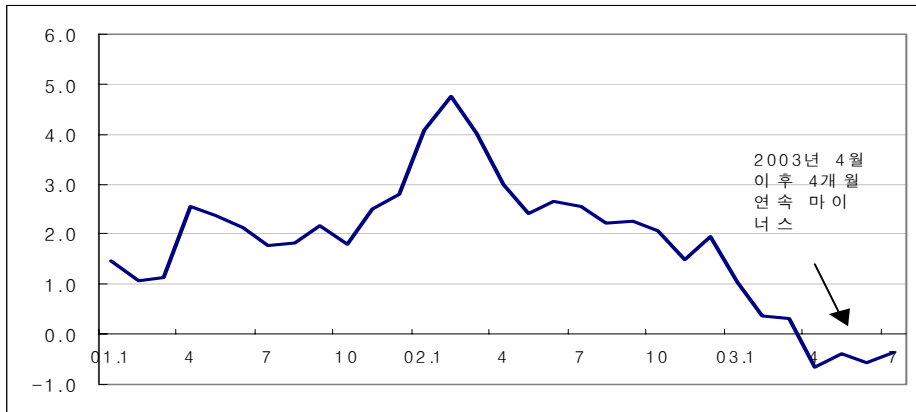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소비위축 심화는 민간부문의 소득기반 약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
 - 고용증가세가 올 4월이후 연속 4개월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가계의 주소득원인 근로소득 기반이 약화

<그림 5>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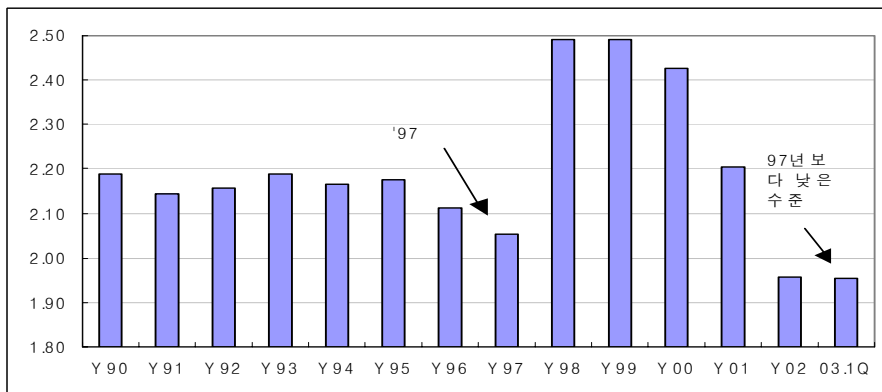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003년 1/4분기 현재 약 1.95배 수준으로 약 2.05배를 기록했던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

<그림 6>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개인부문)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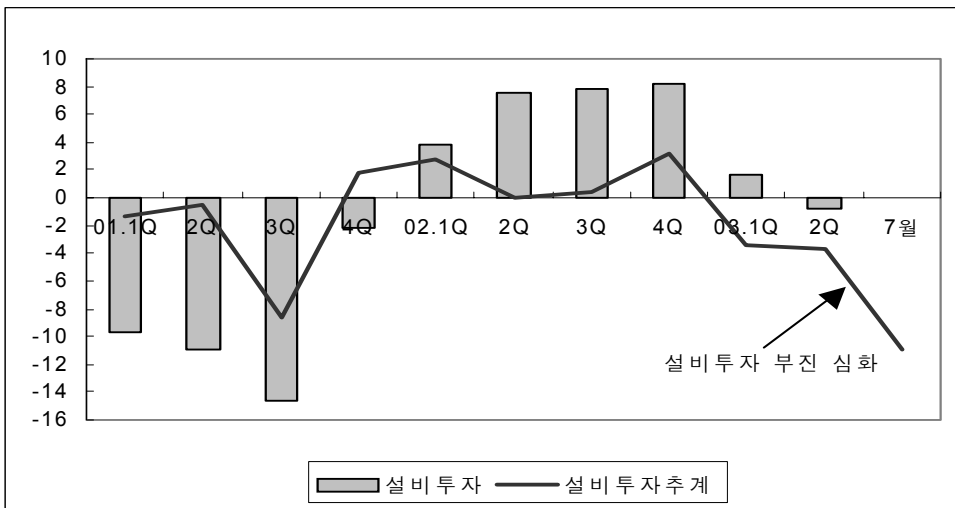
설비투자 부진의 심화

■ 설비투자가 금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

- 1/4분기중에는 1.6%증가에 그쳤던 설비투자가 2/4분기중에는 0.8%감소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조사)는 올 들어 두 분기 연소 감소한데 이어 7월중에도 큰 폭(-11.0%)으로 감소

<그림 7>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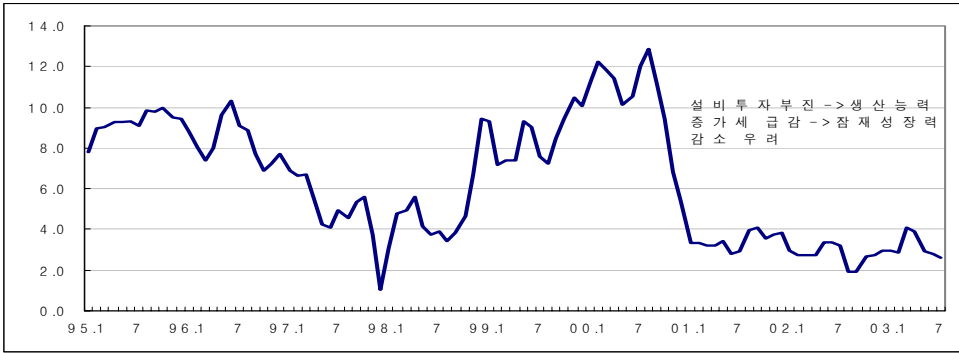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가 2001년 이후 2~3%대에서 정체
-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그림 8>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일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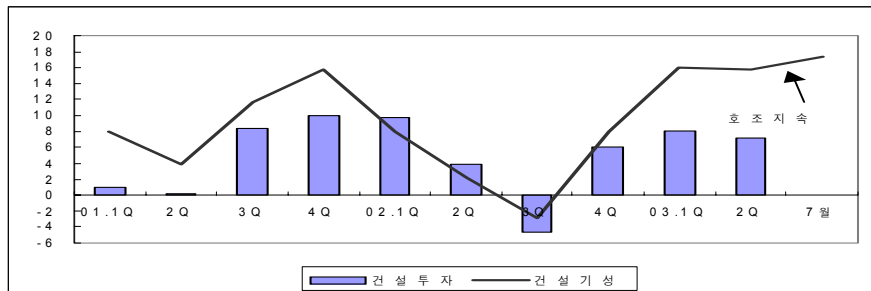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호조 지속

■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건설투자는 1/4분기 8.1%증가한데 이어 2/4분기중에도 7.2%증가
- 건설기성(통계청 조사)도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9> 건설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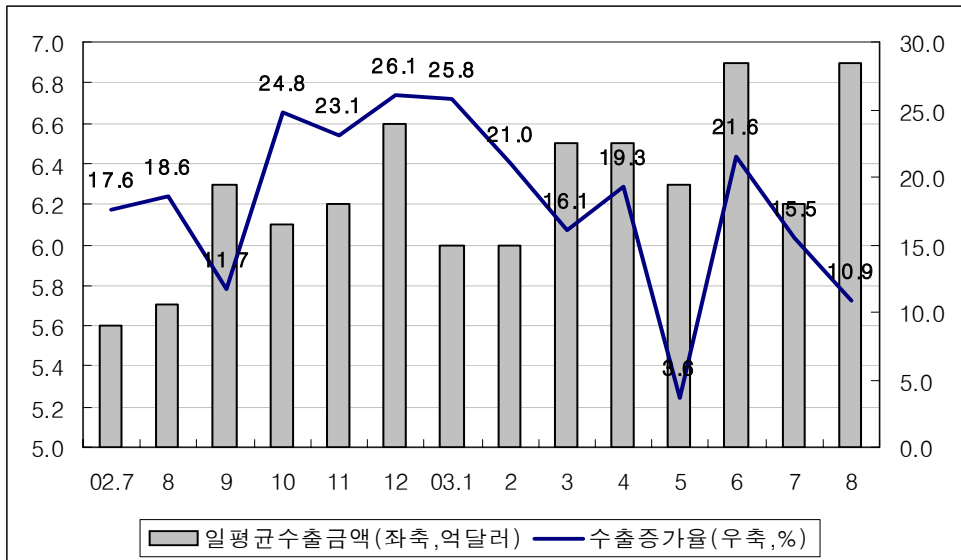
2. 대외거래부문

수출호조 지속

- 수출은 두자리 수 증가세를 보이며 호조 지속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0.7%('03 1Q) → 14.5%(2Q) →13.2%(7~8월)
 - 일평균수출액: 2002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6억불대 지속

<그림 10>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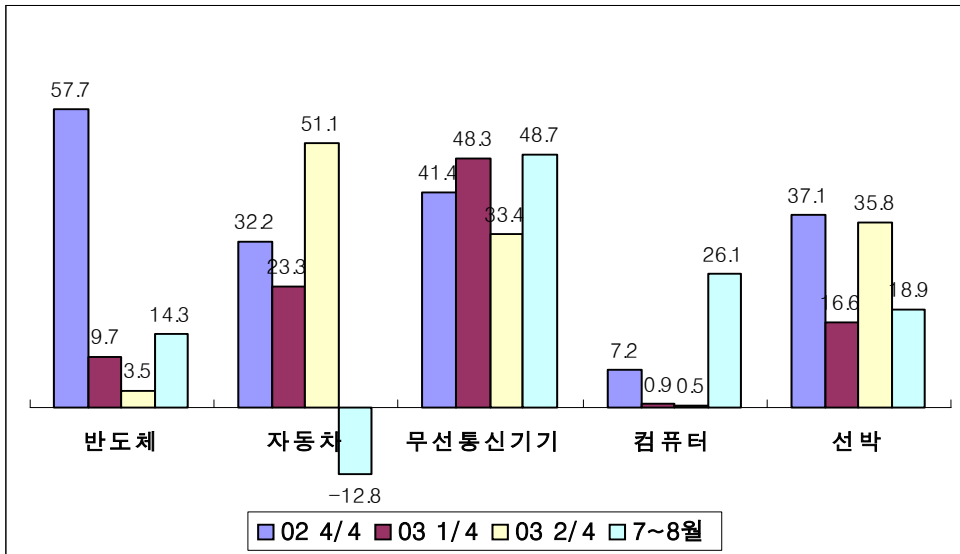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컴퓨터도 회복세를 보임
 -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의 대중국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
 - 반도체는 D램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컴퓨터는 대중국수출 급증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임
 - * DDR256M(\$/개) : 6.46('02 12월) ⇒3.12('03 5월) ⇒4.18(7월) ⇒4.68(8월)
 - 수출차종의 고가화 및 내수위축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호조를 지속하던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기인

<그림 11>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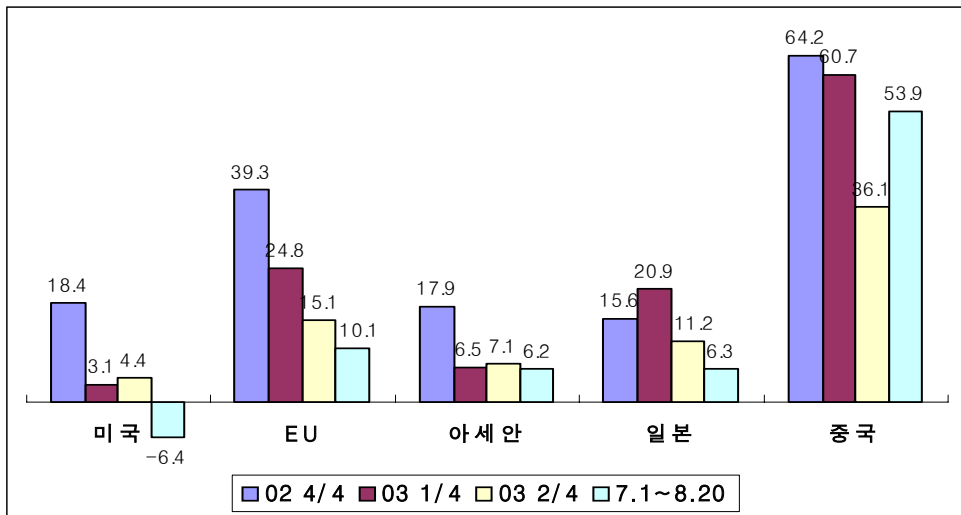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
 - 미국은 자동차수출의 부진으로 7~8월 연속 두달 감소세.

<그림 12>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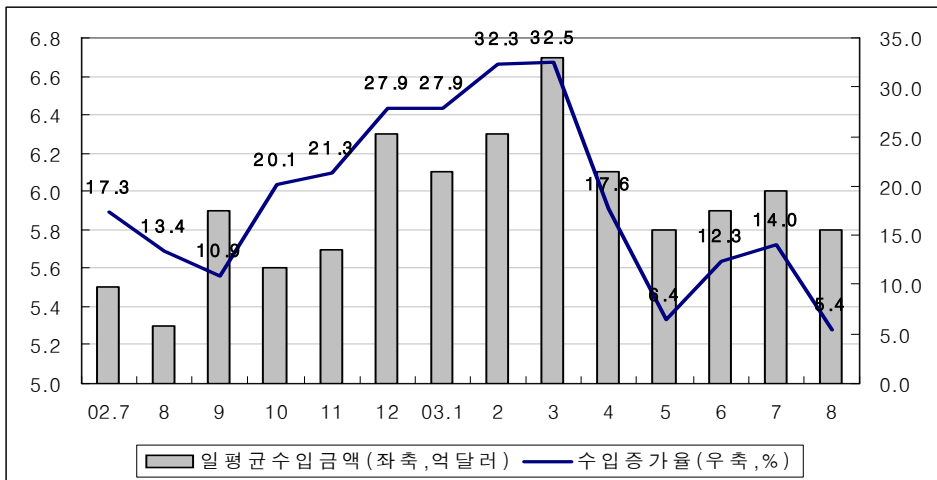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증가세 크게 둔화

- 설비투자, 소비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증가세가 크게 둔화
 - 2/4분기 12.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7월에는 14.0%, 8월에는 5.4%로 증가율이 둔화
 - 일평균수입액도 5월이후 6억불 이하를 지속
 - 7월 수입증가세가 높아진 것은 8월중 석유수입부과금 환원을 앞두고 원유(약 5억달러로 추정)를 조기 도입했기 때문

<그림 13> 수입증가율과 일평균수입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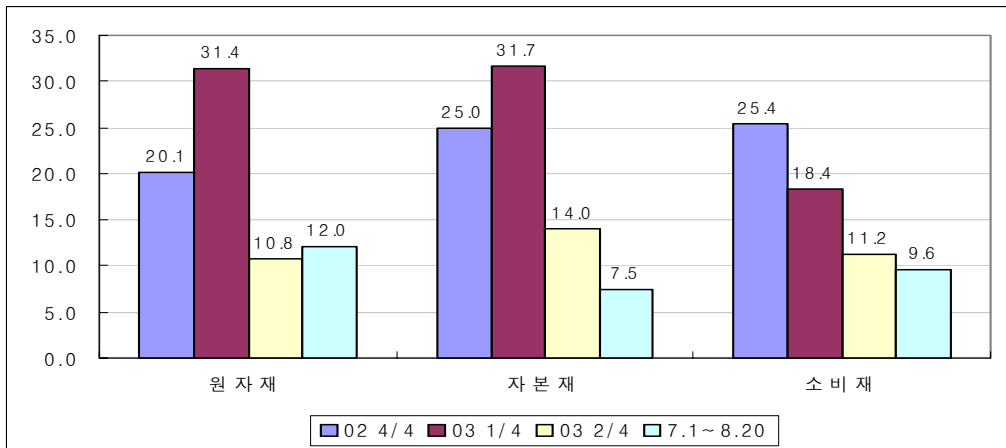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용도별로는 원자재수입 증가세는 높아진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세는 둔화
 - 원자재수입은 이라크전쟁의 종결로 유가가 안정되면서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하락했으나 하반기 들어 철강판 등 기초 산업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소폭 상승
 - 자본재와 소비재수입은 설비투자과 민간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그림 14>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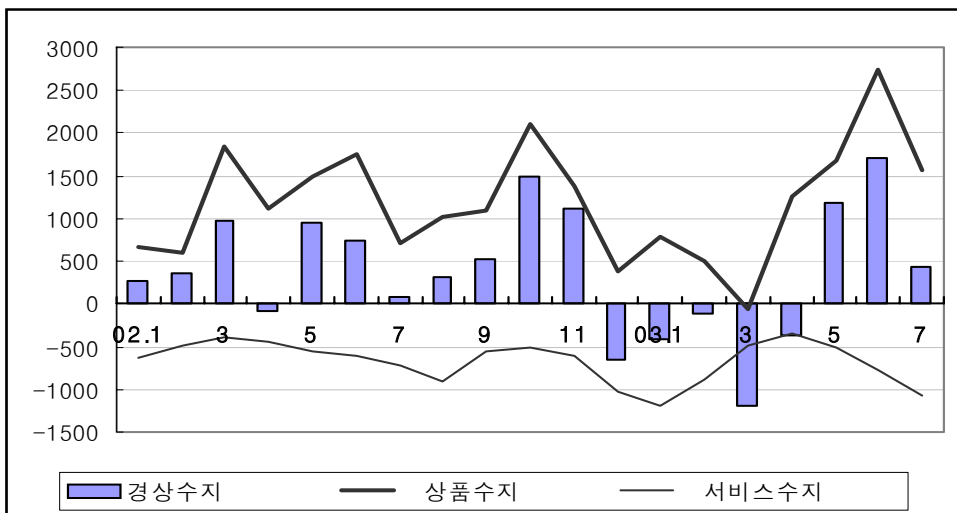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금년 5월 이후 연속 3개월 흑자 지속

-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면서 5월 이후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수출호조가 지속된 반면 수입은 내수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흑자 폭이 크게 증가
 - 서비스수지는 SARS진정,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적자가 확대되면서 적자폭이 확대

<그림 15>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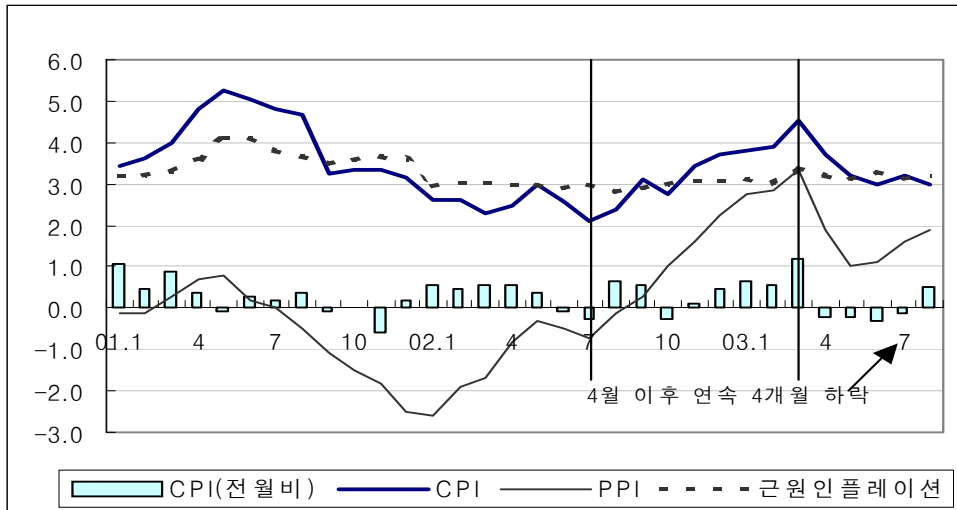
3. 물가부문

전반적인 안정추세 지속

- 금년 4월이후 하락세를 지속
 - 금년 4월 이후 연속 4개월 마이너스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이 8월중에는 잦은 비에 따른 농산물의 출하부진으로 0.5%상승
 - 그러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0%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는 안정추세를 보임

<그림 16> 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이는 국제유가와 원화환율의 하향안정세로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완화된 데다 내수부진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락요인이 작용한 데 기인

<표 1> 주요 물가하락 요인

| | | 2003년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비용 측면 | 원유도입단가(\$/BBL) | 28.40 | 30.41 | 31.95 | 29.51 | 26.47 | 26.44 | 25.75 |
| | 원화환율(원/달러, 평균) | 1179.5 | 1191.3 | 1233.7 | 1231.5 | 1200.1 | 1194.1 | 1181.6 |
| 수요 측면 | 도소매판매(전월비,%) | 6.4 | 0.4 | -2.2 | -2.8 | -1.9 | -0.4 | -1.8 |
|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7.7 | -3.6 | 0.1 | -4.6 | -8.8 | 2.7 | -11.0 |

4. 통화 · 금융부문

최근 총유동성 크게 둔화

- 작년에 12~13%대를 지속했던 M3의 증가세가 6월중에는 9.1%(잠정)를 기록하였고 7월중에는 8%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총유동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
- M1과 M2 증가율도 금년에 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

<표 2>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 2001년 | 2002년 | | | | | 2003년 | |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3월 | 1/4 | 4월 | 5월 | 6월 | 2/4 |
| (신)M1 | 18.0 | 26.8 | 27.9 | 20.3 | 16.1 | 22.5 | 13.7 | 9.5 | 7.8 | 10.3 | 5.3 | 5.2 | 5.9 | 5.5 |
| (신)M2 | 6.9 | 9.5 | 12.4 | 10.9 | 13.0 | 11.5 | 13.9 | 13.3 | 11.9 | 13.1 | 10.3 | 9.1 | 7.9 | 9.1 |
| M3 | 9.6 | 12.1 | 13.7 | 12.6 | 13.2 | 12.9 | 13.1 | 12.5 | 11.7 | 12.4 | 10.2 | 9.4 | 9.1p | 9.6p |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지난 7월 10일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4.00%에서 3.75%로 0.25%p 인하하여 저금리기조를 지속했음에도 최근 총유동성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은 금년 들어 가계대출이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 또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통화를 흡수한 것도 본원통화 증가를 둔화시켜 총유동성 증가를 둔화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

<표 3> 콜 목표금리,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연리, 십억원, %, 원

| | 2002.7 | 8 | 9 | 10 | 11 | 12 | 2003.1 | 2 | 3 | 4 | 5 | 6 |
|----------------------------|----------------------|----------------------|----------------------|---------------------|----------------------|---------------------|----------------------|---------------------|----------------------|---------------------|----------------------|---------------------|
| 콜 목표금리 | 4.25 | 4.25 | 4.25 | 4.25 | 4.25 | 4.25 | 4.25 | 4.25 | 4.25 | 4.25 | 4.00 | 4.00 |
| 통화안정증권 (전월비%) | 85101 0.3 | 86009 1.1 | 84679 -1.5 | 83374 -1.5 | 83869 0.6 | 84278 0.5 | 86588 2.7 | 89433 3.3 | 95750 7.1 | 92560 -3.3 | 94245 1.8 | 97390 3.3 |
| 본원통화 (전년대비%) (전월대비%) | 33129 14.9 1.6 | 33243 15.1 0.3 | 34487 15.3 3.7 | 34554 9.7 0.2 | 34780 12.7 0.7 | 34785 9.7 0.0 | 35465 10.7 2.0 | 36201 6.5 2.1 | 34855 6.0 -3.7 | 35625 7.6 2.2 | 35163 5.5 -1.3 | 35412 8.6 0.7 |
| 원/달러 환율 | 1185 | 1196 | 1209 | 1241 | 1212 | 1209 | 1179 | 1191 | 1232 | 1233 | 1200 | 1194 |

자료: 한국은행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통화환수는 시차를 두고 원화가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총유동성 및 M2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M2와 M3를 이용해 산출한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통화수요에 비해 통화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4> 화폐유통속도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 2000년 | | | | 2001년 | | | | 2002년 | | | | 2003년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 M2수준 | 0.179 | 0.185 | 0.189 | 0.202 | 0.181 | 0.188 | 0.182 | 0.194 | 0.177 | 0.181 | 0.176 | 0.189 | 0.166 | 0.176 |
| 증가율 | 10.47 | 8.38 | 5.32 | 0.39 | 1.02 | 1.94 | -3.21 | -4.07 | -1.98 | -3.71 | -3.81 | -2.62 | -6.17 | -2.67 |
| M3수준 | 0.142 | 0.145 | 0.147 | 0.157 | 0.139 | 0.144 | 0.140 | 0.147 | 0.133 | 0.137 | 0.132 | 0.143 | 0.126 | 0.133 |
| 증가율 | 7.34 | 4.43 | 1.97 | -2.92 | -1.73 | -0.80 | -5.08 | -6.26 | -4.31 | -4.80 | -5.24 | -2.76 | -5.62 | -3.10 |

주 : 2003년 2/4분기 명목GDP는 실질GDP에 소비자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산출

자금사정 :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악화

- 대기업은 향후 경기불투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설비투자를 회피하고 금융권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은행의 대기업대출이 부진
- 회사채는 장기자금수요의 부진과 함께 회사채 프리미엄(회사채 유통수익률 -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상승 지속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로 인해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어 직접자금조달 악화
- 또한 기업어음의 발행급감 및 수요부진, 카드사의 상환 등으로 CP발행잔액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작년에 비해 미약

<표 5>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 | 2002년 | | | | | 2003년 | | | | | |
|---------|-------|------|------|------|------|-------|------|------|------|-------|------|
| | 연중 | 1/4 | 2/4 | 3/4 | 4/4 | 1/4 | 4월 | 5월 | 6월 | 2/4 | 7월 |
| 기업대출 | 37.2 | 12.7 | 11.6 | 8.2 | 4.9 | 16.4 | 7.3 | 3.8 | -0.1 | 11.0 | 5.1 |
| (대 기업) | 0.1 | 3.4 | -1.8 | -0.3 | -1.2 | 1.8 | 2.4 | -1.1 | -2.3 | -1.0 | 1.1 |
| (중소기업) | 37.1 | 9.3 | 13.5 | 8.5 | 6.1 | 14.7 | 4.8 | 4.9 | 2.2 | 11.9 | 4.0 |
| 회사채순발행* | -8.1 | -3.2 | -3.6 | -0.8 | -0.4 | -1.0 | -0.5 | -0.4 | -0.2 | -1.0 | -1.3 |
| CP순발행 | 10.9 | 4.7 | 3.4 | 2.5 | 0.3 | 2.2 | -4.5 | -4.5 | -4.3 | -13.3 | -1.7 |
| 주식발행** | 99.0 | 25.8 | 30.9 | 30.3 | 12.0 | 9.9 | 20.1 | 1.6 | 8.2 | 30.0 | 4.1 |

주 : * 공모회사채 기준, ABS 및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채무조정기업의 만기도래분 제외, 단 Primary-CBO 및 산은신속인수분 포함

** 거래소상장법인의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코스닥협회등록법인의 공모 및 유상증자,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공모 및 모집설립의 합계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7월호.

금년 말 신용불량자 400만 예상

- 7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34만6천명으로 전 국민의 7%,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14.4%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월평균 10만명 추세로 증가한다면 금년 말에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금년 1~7월중 128만명 신규등록, 57만명 해제

※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 연체금액 30만원,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62%를 차지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표 6>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만명

| | 00말 | 01말 | 02말 | 03.3말 | 03.6말 | 03.7말 |
|----------|---------|----------|----------|----------|----------|----------|
| 전체 신용불량자 | 208 | 245 | 264 | 296 | 323 | 335 |
| 신용카드관련 | 78(38%) | 104(43%) | 150(57%) | 177(60%) | 199(62%) | 207(62%)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8.25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66만1천명(19.8%)과 99만4천명(29.7%)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체자인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69.1%인 231만명
- 연체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연체자가 163만6천명으로 48.9% 차지
 - ※ 5백만원 미만: 110.5만명(33.0%), 5백~1천만원: 53.1만명(15.9%), 1~2천만원: 57.4만명(17.2%), 2~3천만원: 32.5만명(9.7%), 3천만원 이상: 81.1만명(24.2%)
- 334만5천명의 신용불량자 중 단일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액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인 80만6천명(24.1%)은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체액이 3천만원 이상의 다중채무자인 74만6천명(22.3%)은 신용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

<표 7> 7월말 금액/등록금융회사 수/연령별 신용불량 현황

단위 : 만명

| | 등록금융회사 수 | | | 연령별 | | | | | 합계 |
|-----------------|----------|-------|------|-------|------|------|------|-------|-------|
| | 1개 | 2~5개 | 6개이상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이상 | |
| 500만원미만 | 62.7 | 46.1 | 1.7 | 0.43 | 34.2 | 30.7 | 26.0 | 19.2 | 110.5 |
| 500~1,000만원미만 | 17.9 | 32.0 | 3.2 | 0.1 | 10.6 | 16.0 | 15.5 | 10.8 | 53.1 |
| 1,000~2,000만원미만 | 12.1 | 32.6 | 12.7 | 0.06 | 9.4 | 18.2 | 17.9 | 11.9 | 57.4 |
| 2,000~3,000만원미만 | 4.3 | 14.4 | 13.8 | 0.01 | 4.7 | 10.6 | 10.5 | 6.7 | 32.5 |
| 3,000만원이상 | 6.5 | 26.0 | 48.6 | 0.006 | 7.2 | 23.9 | 29.8 | 20.1 | 81.1 |
| 합계(명) | 103.5 | 151.1 | 80.0 | 0.6 | 66.1 | 99.4 | 99.7 | 68.7 | 334.6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8.25

- 한편, 2차례 단행된 신용사면 대상자 중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비율이 20%가 넘어 신용사면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 (기준: 2003년 3월말 현재)
- ※ 2000년 1월 17일: 11.8만명 중 2.8만명 재등록 (재등록율: 23.4%)
- 2001년 5월 1일: 37.5만명 중 7.7만명 재등록 (재등록율: 20.5%)
- ※ 금융감독원 5월 20일 민주당 조재환의원 질의 답변자료

장단기 금리만기구조 정상화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의 장기시장금리가 작년 12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7월에 들어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금리만기구조가 정상화됨
- 이는 미국의 2/4분기 GDP가 시장 예상(1.5%)보다 상승하는 등의 미국경제 호전전망과 함께, 정책금리인하,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2/4분기가 국내경기저점이라는 기대확산 등에 기인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6월 들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단기시장금리인 CD(3개월)나 CP(3개월)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7월에 들어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 지속
- 위험자산 기피현상 등으로 하락폭이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회사채 (3년) 유통수익률도 상승세 지속
- 다만 8월에 들어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장단기 금리격차가 다소 축소되고 있는 양상

단위 : 말일, 연리 %p

| | 2000 | 2001 | 2002 | 2003 | | | | | | | | |
|------------|------|------|------|------|------|------|------|------|------|------|------|------|
| | 12월 | 12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2일 |
| 콜(익일)(A) | 6.01 | 4.00 | 4.52 | 4.34 | 4.26 | 4.25 | 4.25 | 3.99 | 4.09 | 3.74 | 3.70 | 3.64 |
| CD(91일) | 6.87 | 4.86 | 4.90 | 4.55 | 4.53 | 4.70 | 4.54 | 4.30 | 4.30 | 3.96 | 3.85 | 3.85 |
| CP(91일) | 7.26 | 5.07 | 5.03 | 4.68 | 4.64 | 5.27 | 5.21 | 4.79 | 4.67 | 4.37 | 4.14 | 4.13 |
| 국고채(3년)(B) | 6.70 | 5.91 | 5.11 | 4.77 | 4.60 | 4.62 | 4.46 | 4.10 | 4.16 | 4.58 | 4.46 | 4.43 |
| 회사채(3년)(C) | 8.13 | 7.04 | 5.68 | 5.29 | 5.14 | 5.38 | 5.32 | 5.21 | 5.45 | 5.87 | 5.60 | 5.53 |
| B-A(%P) | 0.69 | 1.91 | 0.59 | 0.43 | 0.34 | 0.37 | 0.21 | 0.11 | 0.07 | 0.84 | 0.76 | 0.79 |
| C-A(%P) | 2.12 | 3.04 | 1.16 | 0.95 | 0.88 | 1.13 | 1.07 | 1.22 | 1.36 | 2.13 | 1.90 | 1.89 |

자료 :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 (www.bok.or.kr)

5월부터 외국인투자자 주식 순매수로 전환되어 지속

- 주가는 2/4분기 국내경기저점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경향 등으로 상승세 지속

<표 9> 우리나라 및 미국의 주가 추이

| | 2002년 | 2003년 | | | | | | |
|--------|--------|--------|--------|--------|--------|--------|--------|-----------|
| | 12월말 | 3월말 | 4월말 | 5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6월말대비 (%) |
| 종합주가지수 | 627.55 | 535.70 | 599.35 | 633.42 | 669.93 | 713.52 | 759.47 | +13.4 |
| 코스닥지수 | 44.36 | 37.77 | 42.80 | 47.18 | 49.75 | 49.33 | 49.52 | -0.5 |
| 다우존스지수 | 8,342 | 7,992 | 8,480 | 8,850 | 8,985 | 9,234 | 9,416 | +1.8 |
| 나스닥지수 | 1,336 | 1,341 | 1,464 | 1,596 | 1,623 | 1,735 | 1,810 | +11.5 |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경향이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되어 지속
 - 이는 미국주가 상승, 향후 국내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북핵문제 등과 관련된 한미공조관계에 대한 공고화, 국내 주가의 저평가로 인한 저가메리트 등에 기인
 - 다만 미국 주가의 조정국면, 국내 주가의 단기급등 등으로 7월 중순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

<표 10>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억원

| | 2002년 | | | 2003년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중 | 1/4 | 2/4 | 7월 | 8월 |
| 주식순매수 ¹⁾ | -36,307 | 9,193 | -27,114 | -12,685 | 23,330 | 30,369 | 22,970 |

주 : 1) 거래소+코스닥

자료 : 증권거래소

미국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 상승세 지속

- 금년 2월초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하락세를 일시적으로 시현하였으나,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확대,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나타난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표 11>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 | 2001년 | 2002년 | | | | 2003년 | | | | |
|--------|---------|--------|---------|--------|---------|---------|--------|--------|---------|---------|
|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2 |
| 원/달러 | 1,313.5 | 1325.9 | 1201.3 | 1227.8 | 1186.2 | 1254.6 | 1193.0 | 1179.7 | 1179.9 | 1175.9 |
| | (3.1) | (-0.9) | (+9.3) | (+7.0) | (+10.7) | (-5.1) | (-1.1) | (-1.1) | (+0.0) | (-0.4) |
| 엔/달러 | 131.64 | 132.67 | 119.34 | 121.90 | 118.68 | 117.99 | 119.77 | 120.55 | 116.99 | 116.58 |
| | (6.6) | (-1.0) | (+11.2) | (-2.1) | (+2.7) | (+0.1) | (+0.4) | (+0.7) | (-3.0) | (-2.9) |
| 원/100엔 | 1,009.4 | 998.95 | 1004.51 | 988.37 | 1012.87 | 1044.65 | 996.41 | 980.92 | 1005.33 | 1009.23 |
| | (-2.7) | (+1.0) | (-0.6) | (+1.6) | (-2.5) | (-3.6) | (-1.7) | (-1.6) | (+2.5) | (+2.7) |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증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전월동일)대비 절상(+), 절하(-)율(%)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미국 : 내년 상반기 회복세 가속화

■ 동향

-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1.4%)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3.1%(전기대비연율)기록하여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고조
 - 성장원인은 내구소비재의 지출증가(24.1%)에 따른 소비지출의 견조세(3.8%)가 지속되었고, 이라크관련 국방비지출의 급증으로 정부지출(8.2%)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더욱이 감세정책과 정부지출증가에 힘입어 투자가 개선되고, 소비관련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가속화 기대
 - 7월중 산업생산,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8월 ISM제조업 지수는 54.7로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또한 비국방 내구재 주문이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여 제조업부문에서 투자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상승하던 실업률은 7월중에 다시 둔화되고, 7월중 하락했던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들어 다시 반등하여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

<표 12> 미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만명

| | 2001 | 2002 | | | 2003 | | | | | |
|---------------------------------|------------------|----------------|----------------|----------------|----------------|----------------|----------------|----------------|----------------|----------------|
| | | 연중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7월 |
| 실질GDP성장률 ¹⁾ | 0.3 | 2.4 | 4.0 | 1.4 | 1.4 | 3.1 | | | | |
| 산업생산 | -3.5 | -0.7 | 0.8 | -0.8 | 0.1 | -0.8 | -0.5 | 0.1 | 0.0 | 0.5 |
| 제조업가동률 | 75.6 | 73.7 | 74.2 | 73.5 | 73.2 | 72.6 | 72.5 | 72.6 | 72.7 | 72.8 |
| 소매판매 (자동차제외) | 2.9 (2.9) | 3.1 (3.7) | 0.1 (0.5) | 0.8 (1.0) | 0.4 (1.7) | 0.4 (0.2) | -0.3 (-0.9) | 0.5 (0.1) | 0.9 (0.7) | 1.4 (0.8) |
| 내구재수주 (비국방자본재) ²⁾ | -11.4 (-14.2) | -0.1 (-5.0) | 2.9 (-0.2) | -2.8 (-0.3) | 1.1 (3.7) | -1.0 (0.6) | -2.4 (-2.8) | 0.0 (0.5) | 2.6 (2.7) | 1.0 (1.4) |
| CPI상승률 ³⁾ | 2.8 | 1.6 | 1.6 | 2.2 | 2.9 | 2.1 | 2.2 | 2.1 | 2.1 | 2.1 |
| 경기선행지수 ⁴⁾ | 108.6 | 110.9 | 110.8 | 110.9 | 110.7 | 111.3 | 110.5 | 111.7 | 112.0 | 112.5 |
| 실업률 | 4.8 | 5.8 | 5.8 | 5.9 | 5.8 | 6.2 | 6.0 | 6.1 | 6.4 | 6.2 |
|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 | 40.6 | 40.4 | 40.0 | 40.4 | 40.5 | 43.3 | 44.3 | 43.1 | 42.6 | 38.84 |
| 소비자신뢰지수 ⁵⁾ | 106.6 | 96.6 | 95.2 | 81.7 | 68.3 | 82.7 | 81.0 | 83.6 | 83.5 | 77.0 |
| ISM제조업지수 ⁶⁾ | 44.0 (48.5) | 52.4 (55.1) | 50.6 (53.1) | 51.8 (54.6) | 50.2 (52.1) | 48.2 (55.3) | 45.4 (50.7) | 49.4 (54.5) | 49.8 (60.6) | 51.8 (65.1) |

주 : 1) 전기대비연율, 2) 항공기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Conference Board(1996=100)

5) Conference Board(1985=100) 6) 기준치=50, 괄호안은 서비스업 지수임.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관리협회 (ISM)

■ 전망

- 올해 하반기에 회복세를 거쳐 2004년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IMF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올해 미국 경제가 각각 2.4,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04년에는 3.7%, 4.2%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반기 미국경제는 3.5%~4.0% 성장 전망)
 - 하지만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 누증, 기업의 과도한 부채부담 등 성장 제약 요인이 존재
 - * 2003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4.2%에 이르는 4,010억달러에 이르고, 2004년에는 4,800억 달러로 커질 전망
 - * 2002년 기업부채는 GDP대비 46% 수준에 이르고, 올해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360억달러로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

일본 :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

■ 동향

-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6%(연율2.3%) 기록하여 6분기 연속 성장
 - 성장의 주 요인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3.9%)한 반면, 수입은 감소(-4.3%)한 것에 기인. 또한 민간소비(0.3%)와 기업의 설비투자(1.3%)의 상승세도 성장에 기여
- 기업관련 경가지표 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대 상승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6월중 민간기계수주액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7월중 기업도산 건수는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연중 최저수준 기록
 - 일본 정부(내각부)의 8월 월례 보고서에서 생산과 수출의 호전이 기업수익 및 설비투자의 개선으로 이어져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전망

-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부실채권의 문제, 그리고 디플레이션 지속이 경제회복을 제약
- IMF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8%)보다 높은 1.1%에 달한 뒤, 2004년에는 다시 0.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대미 수출증가 및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3년(회계연도기준) GDP성장률 전망을 0.3%~1%(5월)에서 1.3%~1.7%로 상향조정

<표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 2001 | 2002 | | | 2003 |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GDP성장률 ¹⁾ | 0.4 | 0.2 | 0.7 (2.9) | 0.5 (1.9) | 0.3 (1.3) | 0.6 (2.3) | - | - | - | - | - |
| 광공업생산 | -6.8 | -1.4 | 2.0 | 0.4 | 0.3 | -0.6 | 0.1 | -1.5 | 2.6 | -1.2 | 0.5 |
| 광공업재고 | -0.7 | -8.0 | -0.2 | -0.2 | -1.5 | -0.8 | -0.5 | -0.1 | 0.4 | -1.1 | 1.4 |
| 민간기계수주액 | -5.8 | -12.0 | 0.1 | -0.1 | 5.8 | 2.4 | 3.8 | -1.8 | 6.5 | 2.4 | - |
| 자본재출하 ²⁾ | -7.8 | -11.4 | 2.5 | -1.2 | 1.3 | -3.0 | 0.5 | -7.3 | 5.4 | 5.4 | - |
| 실업률 | 5.0 | 5.4 | 5.4 | 5.4 | 5.5 | 5.4 | 5.4 | 5.4 | 5.4 | 5.3 | 5.3 |
| 기업도산건수 ³⁾ | 19.2 | 19.1 | 4.8 | 4.6 | 4.5 | 4.3 | 1.6 | 1.5 | 1.5 | 1.4 | 1.4 |
| 소비자물가 | -0.7 | -0.9 | -0.2 | -0.1 | -0.4 | 0.4 | 0.3 | 0.3 | 0.2 | -0.3 | -0.2 |

주 : 1) 괄호안은 전기대비연율, 2) 전년동기대비, 3) 1,000건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유로지역 : 2004년에 경기회복 기대

■ 동향

- 유로화 가치의 상승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역내 경제 1/3을 차지하는 독일경제가 취약한 것에 기인하여, 유로지역의 2/4분기 GDP성장률은 0.0%를 나타내어 1/4분기(+0.1%)보다 경기부진이 심화
- 경기부진으로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실업률도 3년반이래 최고치 수준인 8.9%, 7월 인플레이션이 1.9%로 경기하강에 대한 리스크 존재
 - * 독일의 경우 7월중 인플레이션이 0.8%로 유로지역 내 최저 수준

■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황

- 유로지역의 7월중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6월(46.7)보다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 PMI도 50.2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함은 물론 7개월만에 경기분기점인 50을 상회
- 독일의 7월 Ifo지수는 1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8월중 경기체감지수도 8개월 연속 상승세

■ 전망

- 하반기 해외경제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저성장에 그치고 2004년에 가서야 경기회복 기대
- IMF는 올해 유로지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전망치(1.1%)보다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2004년에는 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표 14>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 | 2001 | 2002 | | | 2003 |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7월 |
| 유로 지역 | GDP성장률 ¹⁾ | 1.5 | 0.8 | 0.3 (1.0) | 0.1 (1.2) | 0.1 (0.8) | 0.0 (0.4) | | | | |
| | 산업생산 ²⁾ | 0.5 | -0.6 | 0.0 | -0.3 | 0.1 | -0.3 | -0.5 | -0.4 | -0.1 | 0.0 |
| | 소매판매 | 1.6 | 0.0 | 0.2 | -0.3 | 0.2 | 0.3 | 1.6 | -0.7 | 0.0 | - |
| | 실업률 | 8.0 | 8.4 | 8.4 | 8.6 | 8.7 | 8.9 | 8.8 | 8.9 | 8.9 | 8.9 |
| | CPI상승률 ³⁾ | 2.3 | 2.3 | 2.1 | 2.3 | 2.3 | 2.0 | 2.1 | 1.9 | 2.0 | 1.9 |
| | PMI지수 ⁵⁾ | 47.8 <51.6> | 49.8 <51.6> | 50.4 <50.9> | 49.0 <50.5> | 49.3 <48.9> | 47.1 <47.9> | 47.8 <47.7> | 46.8 <47.9> | 46.7 <48.2> | 48.0 <50.2> |
| 독일 | GDP성장률 ¹⁾ | 0.8 | 0.2 | 0.1 (0.9) | -0.0 (0.3) | -0.2 (0.4) | -0.1 (-0.6) | | | | |
| | 산업생산 ²⁾ | -0.3 | -1.3 | -0.1 | -0.5 | 0.5 | -0.2 | -0.2 | -0.3 | -0.1 | 0.3 |
| | 소매판매 | 0.4 | -1.8 | 0.4 | -0.6 | 0.0 | 0.8 | 2.4 | -1.3 | 1.2 | - |
| | 실업률 | 9.4 | 9.8 | 9.8 | 10.0 | 10.5 | 10.6 | 10.7 | 10.6 | 10.6 | 10.6 |
| | CPI상승률 ³⁾ | 2.0 | 1.4 | 1.0 | 1.2 | 1.2 | 0.9 | 1.0 | 0.7 | 1.0 | 0.9 |
| | Ifo경기지수 ⁶⁾ | 89.9 | 89.1 | 88.8 | 87.5 | 88.1 | 87.7 | 88.1 | 87.6 | 88.8 | 89.2 |
| 프랑스 | GDP성장률 ¹⁾ | 2.1 | 1.2 | 0.3 (1.3) | -0.1 (1.4) | 0.2 (1.0) | -0.3 (0.0) | | | | |
| | 산업생산 ²⁾ | 1.1 | -1.0 | -0.1 | -0.3 | 0.4 | -0.4 | -0.7 | -0.4 | 0.0 | 0.2p |
| | 소비지출 | 3.7 | 1.2 | 0.0 | 0.3 | 0.2 | 0.4 | 2.2 | -2.1 | 1.1 | - |
| | 실업률 | 8.7 | 9.0 | 9.0 | 9.2 | 9.4 | 9.5 | 9.5 | 9.5 | 9.5 | 9.6 |
| | CPI상승률 ³⁾ | 1.7 | 1.9 | 1.7 | 2.1 | 2.4 | 1.9 | 2.0 | 1.8 | 2.0 | 1.9 |
| | Insee지수 ⁷⁾ | 100.9 | 96.5 | 97.0 | 97.0 | 97 | 91.7 | 95 | 92 | 90 | 91 |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2) 건설업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1995=100

5) 기준치=50, 제조업, < >내는 서비스업 6) 1991=100 7) 기준치=100

자료 : 유로통계청, 독일연방통계청, Ifo 경제연구소, 프랑스통계청 등

중국 : 내년에도 8%상회하는 고성장 지속

■ 동향

■ SARS충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

-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SARS충격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2/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지난 1/4분기(9.9%)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6.7%를 기록
- 6월이후 사스충격이 진정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

■ 전망

■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해외투자유입 증가 기대로 올해와 내년 8% 상회하는 성장 예상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정보센터(SIC)는 올해 7%대의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8월에 8.3%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
- Lehman Brothers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7.3%에서 8.0%로 상향 조정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6%로 높아질 전망
 - *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 ; 3.9%(2000년) → 4.3%(2001년) → 5.2%(2002년)

<표 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 2001 | 2002 | | 2003 | | | | | |
|--------------------|-------|--------|--------|--------|--------|--------|--------|--------|--------|
| | | 연간 | 4/4 | 1/4 | 2/4 | 4월 | 5월 | 6월 | 7월 |
| GDP성장률 | 7.3 | 8.0 | 8.1 | 9.9 | 6.7 | - | - | - | - |
| 산업생산 | 9.9 | 12.6 | 14.5 | 17.2 | 15.2 | 14.9 | 13.7 | 16.9 | 16.5 |
| 소매판매 | 10.1 | 8.8 | 9.1 | 9.2 | 6.8 | 7.7 | 4.3 | 8.3 | 9.8 |
| 고정투자 ¹⁾ | 13.7 | 17.4 | 17.4 | 31.6 | 32.8 | 30.5 | 31.7 | 32.8 | 32.7 |
| CPI상승률 | 0.9 | -0.8 | -0.6 | 0.5 | 0.7 | 1.0 | 0.7 | 0.3 | 0.5 |
| 수출(억달러) | 2,667 | 3,256 | 930 | 864 | 1,039 | 356 | 338 | 345 | 381 |
| 수출증가율 | (7.0) | (22.5) | (30.5) | (33.2) | (34.4) | (33.3) | (37.3) | (32.6) | (30.6) |
| 수입(억달러) | 2,436 | 2,953 | 826 | 874 | 985 | 346 | 316 | 323 | 365 |
| 수입증가율 | (8.2) | (21.2) | (33.2) | (52.6) | (38.5) | (34.4) | (40.9) | (40.1) | (35.3) |

주 1) 누계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 국제금융시장 : 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 :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 전망

■ 동향

■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6월중 이후 장기 금리 급상승

- 6월중순 미국 장기금리는 3.1%로 4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8월중반에는 4.5%로 급등

- 급상승 원인은 최근 급속한 경제회복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FRB가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기인

■ 전망

-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장단기 금리 상승세 전망
- 채권전문가들은 올해 연말 미국 장기금리는 5%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연방준비위원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

<표 16>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기말기준)

단위 : %

| | | 2000 | 2001 | 2002 | 2003 | | | | | | |
|----------|----|-------|-------|-------|-------|-------|-------|-------|-------|-------|-------|
| | | | | | 1/4 | 2/4 | 5월 | 6월 | 7월 | 8월 | 9/3 |
| 단기 금리 | 미국 | 6.399 | 1.881 | 1.380 | 1.323 | 1.235 | 1.280 | 1.116 | 1.114 | 1.140 | 1.145 |
| | 일본 | 0.545 | 0.097 | 0.065 | 0.059 | 0.057 | 0.056 | 0.056 | 0.052 | 0.055 | 0.053 |
| | 유로 | 4.854 | 3.300 | 2.861 | 2.618 | 2.814 | 2.274 | 2.143 | 2.120 | 2.150 | 2.157 |
| 장기 금리 | 미국 | 5.120 | 5.030 | 3.810 | 3.820 | 3.577 | 3.370 | 3.520 | 4.400 | 4.450 | 4.620 |
| | 일본 | 1.630 | 1.370 | 0.910 | 0.770 | 0.667 | 0.540 | 0.846 | 0.945 | 1.464 | 1.673 |
| | 유로 | 4.850 | 5.000 | 4.200 | 4.010 | 3.872 | 3.721 | 3.802 | 4.190 | 4.197 | 4.343 |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단, 유로 장기금리는 독일 정부채 금리임.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3.8), BOK

환율 : 달러약세 기조 지속 전망

■ 동향

■ 미달러화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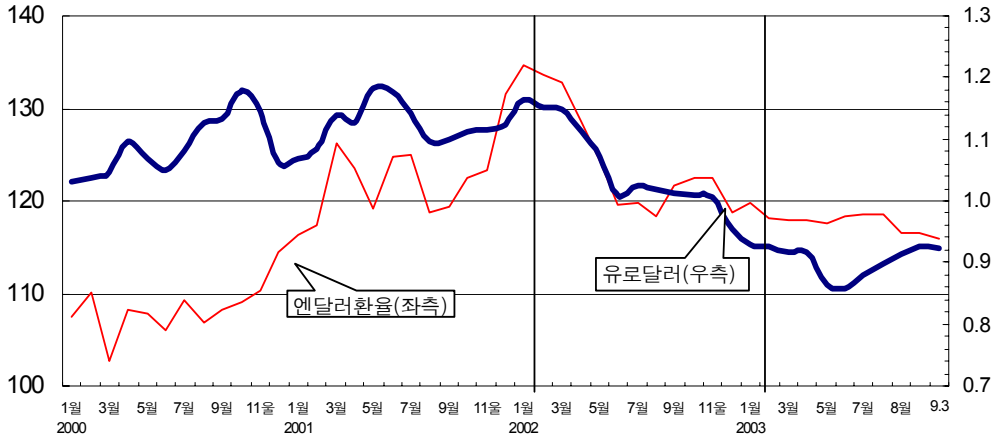
- 엔화와 유로화는 올해 초에 비해 각각 2%, 5.1% 평가절상(8월평균기준)
-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엔화는 13.6%, 유로화는 27.8% 평가절상

■ 전망

■ 달러화의 약세 지속 전망

- 최근 미 달러화의 상승은 미국의 경기회복 호전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누증 등 달러 약세요인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올해말 유로화는 1.10~1.11달러, 엔화는 115엔을 예상하지만, 2004년 말에는 유로화는 1.35 달러, 엔화는 105엔으로 예상하며 달러 약세기조를 전망
 - * HSBC은행은 2004년 말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17> 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평균기준)



3. 원자재가격

국제유가 : 수급불안 우려로 강세 기조 유지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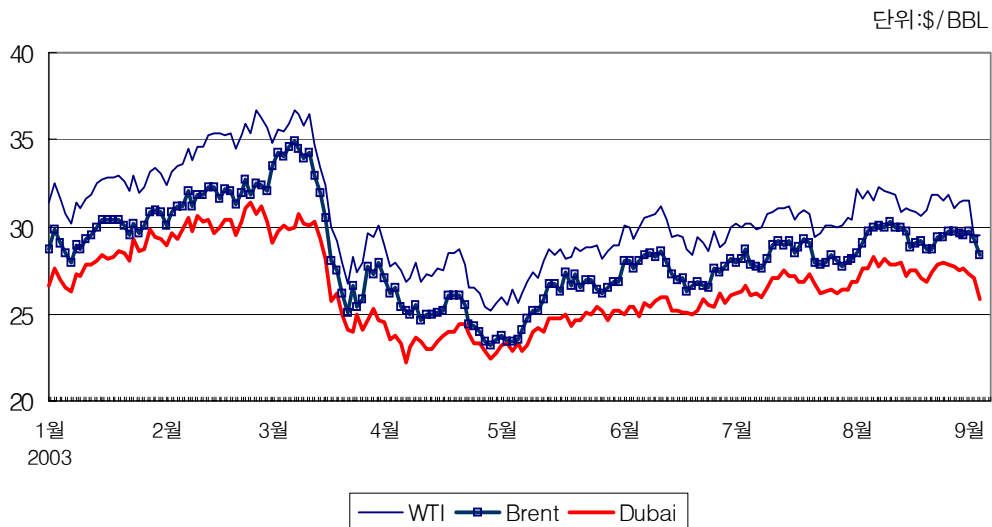
-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배럴당 31달러에 이르는 초강세
 - 이라크내 원유 공급 정상화를 위한 설비복구가 지연되고, 폭탄테러에 따른 정국불안이 고조된 상태

■ 전망

■ 수급불안으로 당분간 유가는 강세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경제의 회복으로 원유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나, OPEC은 최근의 고유가는 공급부족보다는 이라크의 불안정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어 원유증산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 예측기관들은 올해말 당초 전망치 25달러에서 29달러로 상향 수정전망과 함께 2004년에도 이라크 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평균유가는 당초 전망치인 24.5달러에서 27달러로 상향 수정전망

<그림 18> 국제 원유가격 추이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성장률, 올해 2.7%, 내년에는 4%대에 그칠 전망

- 1/4분기에 이어 전기대비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경제는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2003년 연간 성장률은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월 단위 지표들에 의하면 6월 호조세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7월중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소비와 설비투자 지표가 이를 시사함
- 특히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주 이상 지속된 현대차 분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올 봄부터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는 각종 쟁의행위는 생산, 수출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추세가 조만간 반전될 가능성이 낮음. 이는 앞으로도 내수회복을 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미국경제의 회복전망이 높아지고 중국의 고도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외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하반기중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 따라서 하반기중에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의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올 해 우리 경제의 저조한 성장을 예견케 해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출 호조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가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성장률 결정요인이 될 것임
- 내년 중에는 지속적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연간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아진 4.4%에 그칠 전망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3.8%, 하반기 4.9%로 점차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수출은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금년의 호조가 내년중에도 이어지면서 연간 9%(국제수지기준)의 증가율이 예상됨
- 그러나 민간소비는 그동안 이루어진 추경 등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으로 가파른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진정되었으나 소비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인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문제 등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하회하는 연간 3%대에 그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이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비교적 높은 연간 7%대의 증가세가 예상됨
- 최근의 소비급락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불안 등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대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증거는 일각에서 그 동안 국내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하던 교역조건을 고려한 국민소득 (GDI, 혹은 GNI)이 2/4분기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GDI는 구매력을 감안한 가장 대표적인 현재소득 지표임. 따라서 2/4분기 GDI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0.8% 증가)와 소비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1.4% 감소) 사이의 괴리는 가계의 소비행태가 현재소득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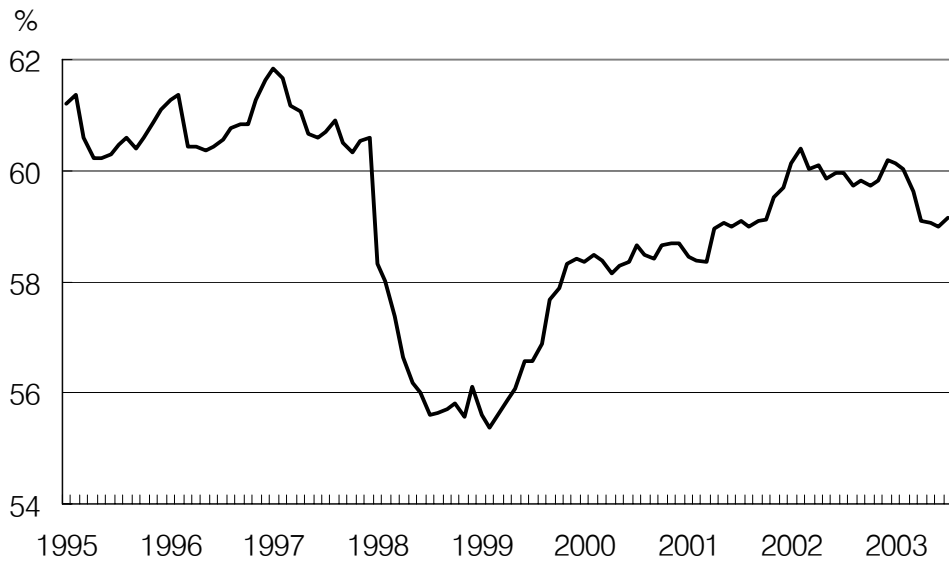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소비감소세는 일반 가계의 소비-저축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 미래소득 (또는 permanent income)에 대한 불안증대가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낮추고 저축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짐

투자부진-고용감소-소비부진의 악순환

- 내수부진과 관련하여 투자-소비 부진은 우려스러운 장기 추세와 연결될 수 있음. 투자와 고용결정의 주체는 생산자인 기업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이루어짐
- 적정한 노동투입 (즉, 신규고용)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무비가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고용이 유지됨. 노무비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비해 높을 경우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도가 있음
- 첫째 방안은 투자증대를 통해 자본량을 늘림으로써 각 노동투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
- 두 번째는 노동 투입을 줄이는 것임. 즉 총 노동투입량을 낮추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짐. 개별 기업단위의 이런 움직임이 경제전체에 걸쳐 종합하였을 때 고용 감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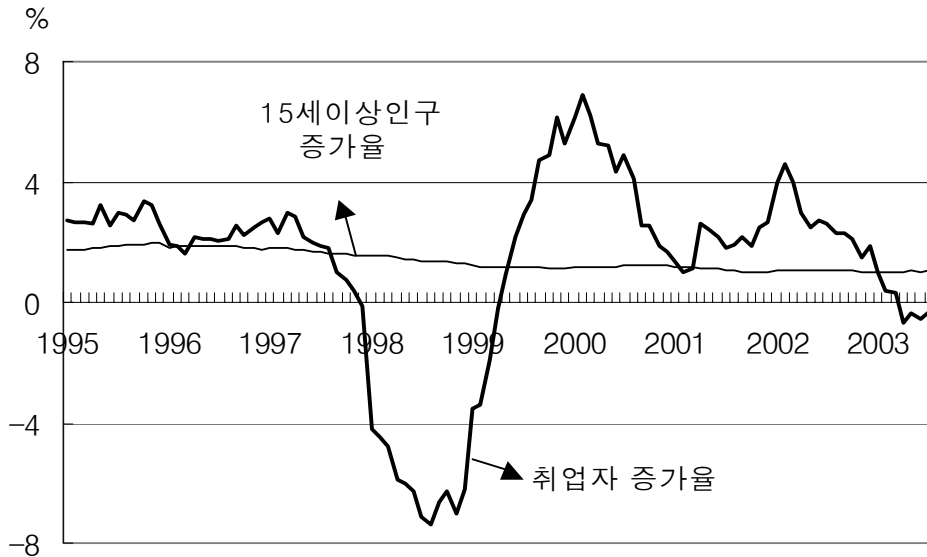
- <그림 19>는 총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고용지수인데 전체 노동력의 활용정도를 보여줌. 특이점 중의 하나는 2002년 수준에 비해 2003년 고용지수가 두드러지게 낮아졌다는 것임

<그림 19> 고용지수(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 추이



- <그림 20>는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가추세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세를 보여줌. 취업자 증가율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근로소득은 가계부문의 제일 큰 소득 원임. 따라서 취업감소는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의 향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됨

<그림 20> 취업자수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 이런 분석의 시사점은 소비-투자 부진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연결된 증세임을 의미함. 즉, 투자부진-고용감소-소비하락의 악순환의 공통적 원인으로 기업 활동 위축을 들 수 있음
- 즉,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노무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유일하게 가능한 수동적인 대응 방안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음

2.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 올 1/4분기의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안정의 영향으로 2003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3.3%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연속 4개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8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음. 하지만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올 3월 4.5%를 기록한 이후 8월에는 3%로 낮아졌음
- 향후에도 총수요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 원화 환율가치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점도 물가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 내년중에도 전반적인 물가안정이 예상되나 완만하나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보다는 소폭 높아진 3.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상됨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점차 악화되며 내년에는 적자로 반전될 전망

- 경상수지는 지난 해 흑자규모(약 61억달러)의 절반 수준인 연간 약 31억 달러 흑자에 그칠 전망
 - 8월까지 수출은 노사불안, 환율하락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수출호조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까지 지역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對중화권 수출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반해 對미국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는 향후 미국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 추가적인 대미국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
 - 따라서 4월 이후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상회하는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는 연간 약 153억불 흑자를 보일 전망
 - 그러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크게 감소
- 내년에는 서비스수지의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회복되면서 수입증가세가 높아져 2004년 경상수지는 약 22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전망

4. 금융부문

장기금리, 향후 경기회복기대로 완만한 상승 예상

- 향후 국내경기회복 기대, 대외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장기금리는 금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미미하지만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호전전망,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의 대외경제여건 개선과 함께, 그동안 이루어진 정책금리인하, 추경예산 집행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기대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장기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하반기에 5.8%, 내년에는 연평균으로 6.2%로 점차 높아질 전망

원/달러환율 : 달러약세기조로 점진적 하락추세 보일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확대,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나타난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원/달러환율은 하반기 평균 1167원, 내년 연평균 1153원으로 점차 하락(원화가치의 상승)할 전망

<표 18> 2003~200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 | 2002년 | 2003년 | | | | 2004년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국내 총생산 | 6.3 | 3.7 | 1.9 | 2.1 | 3.2 | 2.7 | 3.8 | 4.9 | 4.4 |
| (계절조정 전분기%) | | -0.4 | -0.7 | 1.3 | 3.2 | | | | |
| 총소비 | 6.2 | 1.2 | -1.4 | -1.5 | -0.7 | -0.6 | 2.5 | 3.8 | 3.1 |
| 민간소비 | 6.8 | 0.7 | -2.2 | -2.3 | -1.3 | -1.3 | 2.4 | 3.9 | 3.2 |
| 고정자본형성 | 4.8 | 4.8 | 3.5 | 2.9 | 2.1 | 3.2 | 3.9 | 5.9 | 4.9 |
| 설비투자 | 6.8 | 1.6 | -0.8 | -1.9 | 0.1 | -0.3 | 5.7 | 8.9 | 7.2 |
| 건설투자 | 3.3 | 8.1 | 7.2 | 6.7 | 3.3 | 6.0 | 2.3 | 3.8 | 3.1 |
| 총수출 | 14.9 | 17.2 | 10.3 | 9.8 | 8.6 | 11.3 | 7.0 | 8.4 | 7.7 |
| 총수입 | 16.4 | 17.9 | 7.5 | 8.7 | 7.5 | 10.2 | 7.8 | 9.7 | 8.8 |
| | | | | | | | | | |
| 생산자 물가 | -0.3 | 3.0 | 1.3 | 1.7 | 1.7 | 1.9 | 1.9 | 2.1 | 2.0 |
| 소비자 물가 | 2.7 | 4.3 | 3.2 | 3.0 | 2.9 | 3.3 | 3.2 | 3.5 | 3.4 |
| | | | | | | | | | |
| 경상수지 | 60.9 | -17.2 | 25.2 | 5.1 | 17.6 | 30.8 | -12.8 | -13.0 | -25.8 |
| 상품수지 | 141.8 | 12.3 | 57.0 | 38.4 | 45.2 | 152.8 | 55.3 | 55.7 | 111.0 |
| 수출 | 1625.6 | 445.1 | 464.7 | 459.3 | 495.7 | 1864.8 | 984.5 | 1048.1 | 2032.6 |
| 증가율 (%) | 7.5 | 23.5 | 14.5 | 12.3 | 10.0 | 14.7 | 8.2 | 9.7 | 9.0 |
| 수입 | 1483.7 | 432.8 | 407.7 | 420.8 | 450.6 | 1711.9 | 929.3 | 992.3 | 1921.6 |
| 증가율 (%) | 7.7 | 31.5 | 12.6 | 10.5 | 9.4 | 15.4 | 10.6 | 13.9 | 12.3 |
| 서비스,소득&이전 | -80.4 | -29.5 | -31.7 | -33.3 | -27.6 | -122.1 | -68.0 | -68.8 | -136.8 |
| | | | | | | | | | |
| 원/달러환율(평균) | 1251.8 | 1201.8 | 1206.6 | 1171.5 | 1163.3 | 1185.8 | 1154.7 | 1150.3 | 1152.5 |
| 회사채수익률(%평균) | 6.6 | 5.5 | 5.3 | 5.8 | 5.9 | 5.6 | 6.1 | 6.3 | 6.2 |
| 실업률(%) | 3.1 | 3.6 | 3.3 | 3.5 | 3.5 | 3.5 | 3.5 | 3.4 | 3.4 |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내수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 정부는 그동안 정책금리의 인하, 재정조기집행, 추경편성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운동을 하여 왔음
 - 콜금리목표 인하 : 4.25%→4.00%(5월 13일) , 4.00%→3.75%(7월 10일)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 전년동기비 13.0% (9.6조원) 증가
 -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7월 14일):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 추경 및 세법개정안 통과(7월 15일) : 추경(4.5조원), 특소세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그동안 취해진 정책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117.5조 규모의 2004년도 예산을 발표했는데 올 해 경기부진의 여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2% 밖에 늘어나지 않은 '초긴축' 예산을 편성.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의 효과로 기업부문의 세금부담이 약 0.6조원 정도의 줄 것이라는 추산을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3조원에 그침

- 7월에 있었던 0.25%p 정책금리인하 이후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인하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경기국면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올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내수부진은 협의의 총수요결정변수외의 기타 요인들인 각종 이익집단분규 악화, 이와 관련된 정부 대응의 혼선 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적 대응방안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제한적이고 내수부진이 지금처럼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안 취해진 정책조치들이 현 경제여건에 비해 미흡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더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 재정의 경우, 4.5조원의 추경예산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약 8.8조원의 하반기 예산감소분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유사한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의 경우,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경제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심리 회복

-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지정학적, 사회적 불안요인 등 경제외적 요인들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등을 통해 안보와 관련된 불안감 불식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중 토론은 바람직하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신뢰성 제고
-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해소에 있어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를 분명히 처벌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부역할 정립이 필요

3.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정립

- 무엇보다도 중요한 불안요인인 노사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확실한 입장정리가 요망됨. 특히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함
- 기업은 불법노동행위추방 및 근로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추방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
-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 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 도입 추진
- 정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활성화, 기업은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근로자는 자기개발노력 및 무리한 근로조건요구 자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비정규직 증가 억제에 노력

4.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

- 투자부진-고용부진-소비부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제적 유인(incentive)책을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선진화 주도 10개 부문 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철폐가 발표되었음. 일견 유사 정부부처의 일거리 만들기식, 협소한 산업정책 접근방법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투자활성화의 효과가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음
 - 비단 협소한 10개 부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잠재적 투자애로요인이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런 여건 개선을 통해서 현재 정책 입안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장산업이 발굴될 수도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함
- R&D 분야의 투자증대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함. 민간기업의 R&D 활동은 시간과 해당기업에 국한되는 직접적인 경제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정부가 직접 출연하고 지원하는 R&D 활동은 이런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증대를 고려하여야 함. 이런 조치는 안정된 고용 및 연구여건을 조성해 주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공계 인력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부 록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 | | | | | | | | |
|-----------------|-----------|------|--------|------------|-----|-------|-------|------|--|
| 연월 | 경제성장률 | | 1인당 | 소비 | | 투자 | | | |
| | GDP | 제조업 | GNI | 민간 | 정부 | 총고정투자 | 설비 | 건설 | |
| | 전년동기대비(%) | | US \$ | 전년동기대비 (%) | | | | | |
| 2000년 | 9.3 | 15.9 | 9,770 | 7.9 | 0.1 | 11.4 | 35.3 | -4.1 | |
| 2001년 | 3.1 | 2.1 | 9,000 | 4.7 | 1.3 | -1.8 | -9.6 | 5.3 | |
| 2002년 | 6.3 | 6.3 | 10,013 | 6.8 | 2.9 | 4.8 | 6.8 | 3.3 | |
| 2000년 4/4 | 5.0 | 6.9 | | 3.9 | 0.5 | 2.0 | 9.3 | -2.7 | |
| 2001년 1/4 | 3.8 | 4.6 | | 1.9 | 0.6 | -4.9 | -9.7 | 1.0 | |
| 2/4 | 3.0 | 2.5 | | 4.4 | 1.0 | -5.2 | -11.0 | 0.1 | |
| 3/4 | 2.1 | -0.8 | | 5.3 | 1.9 | -2.5 | -14.7 | 8.4 | |
| 4/4 | 3.5 | 2.4 | | 7.2 | 1.5 | 4.9 | -2.2 | 10.0 | |
| 2002년 1/4 | 6.2 | 4.2 | | 8.9 | 5.3 | 6.6 | 3.8 | 9.7 | |
| 2/4 | 6.6 | 6.6 | | 7.9 | 4.4 | 5.4 | 7.5 | 3.8 | |
| 3/4 | 5.8 | 5.5 | | 6.2 | 1.5 | 0.5 | 7.8 | -4.6 | |
| 4/4 | 6.8 | 8.8 | | 4.3 | 1.0 | 6.8 | 8.2 | 6.0 | |
| 2003년 1/4 | 3.7 | 5.2 | | 0.7 | 4.0 | 4.8 | 1.6 | 8.1 | |
| 2/4 | 1.9 | 2.2 | | -2.2 | 3.6 | 3.5 | -0.8 | 7.2 | |

| 무역 · 국제수지 | | | | | | | | |
|-----------|---------|---------------|---------|---------------|-------|-------|---------------------------------|--------------|
| 연월 | 무역 | | | | 국제수지 | | 외환 보유액 ¹⁾ (기말) | 대미환율 (기말) |
| | 수출(FOB) | | 수입(CIF) | | 상품 | 경상 | | |
|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 원/달러 | |
| 2000년 | 1,722.7 | 19.9 | 1,604.8 | 34.0 | 168.7 | 122.4 | 962.0 | 1,259.7 |
| 2001년 | 1,504.4 | -12.7 | 1,411.0 | -12.1 | 134.9 | 82.4 | 1,028.2 | 1,326.1 |
| 2002년 | 1,624.7 | 8.0 | 1,521.3 | 7.8 | 141.8 | 60.9 | 1,214.1 | 1,186.2 |
| 2002년 6월 | 128.9 | -0.3 | 119.3 | 1.8 | 17.4 | 7.3 | 1,124.4 | 1,201.3 |
| 7월 | 134.0 | 17.6 | 130.3 | 17.3 | 7.1 | 0.8 | 1,155.0 | 1,188.0 |
| 8월 | 139.6 | 18.6 | 128.6 | 13.4 | 10.3 | 3.2 | 1,165.4 | 1,201.9 |
| 9월 | 139.0 | 11.7 | 129.9 | 10.9 | 10.9 | 5.3 | 1,166.9 | 1,227.8 |
| 10월 | 150.9 | 24.8 | 138.2 | 20.1 | 21.2 | 14.9 | 1,170.0 | 1,221.6 |
| 11월 | 152.0 | 23.1 | 139.9 | 21.3 | 13.6 | 11.2 | 1,183.3 | 1,208.8 |
| 12월 | 150.3 | 26.1 | 144.5 | 27.9 | 3.9 | -6.5 | 1,214.1 | 1,186.2 |
| 2003년 1월 | 143.2 | 25.8 | 144.9 | 27.9 | 7.9 | -4.2 | 1,229.1 | 1,170.1 |
| 2월 | 133.4 | 21.0 | 138.5 | 32.3 | 5.0 | -1.1 | 1,239.9 | 1,193.7 |
| 3월 | 153.9 | 16.1 | 158.7 | 32.4 | -0.6 | -11.9 | 1,238.2 | 1,254.6 |
| 4월 | 157.3 | 19.3 | 147.7 | 17.6 | 12.7 | -3.7 | 1,236.2 | 1,215.3 |
| 5월 | 146.8 | 3.6 | 135.1 | 6.4 | 16.8 | 11.8 | 1,283.4 | 1,205.9 |
| 6월 | 156.8 | 21.6 | 134.0 | 12.3 | 27.5 | 17.1 | 1,316.6 | 1,193.0 |
| 7월 | 154.7 | 15.5 | 148.5 | 14.0 | 15.7 | 4.3 | 1,329.1 | 1,179.7 |
| 8월 | 154.8 | 10.9 | 135.6 | 5.4 | | | 1,361.9 | 1,178.2 |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 연월 | 물가2) | | 실업률 (계절조정) | 제조업 명목임금 | 통화3) | | 회사채 수익률 | 주가지수 80.14=100 |
|----------|------------|----------|---------------|-------------|------|--------|------------|-------------------|
| | 생산자 | 소비자 | | | 신M2 | M3 | | |
| | 전년동기대비 (%) | | (%) | 전년동기대비 (%) | | 연%, 평균 | 기간평균 | |
| 2000년 | 2.0(0.6) | 2.3(2.8) | 4.1 | 8.6 | 2.2 | 5.6 | 9.35 | 734.2 |
| 2001년 | -0.5(-2.5) | 4.1(3.2) | 3.8 | 5.8 | 6.9 | 9.6 | 7.05 | 572.8 |
| 2002년 | -0.3(2.3) | 2.7(3.7) | 3.1 | 11.9 | 11.5 | 12.9 | 6.56 | 757.0 |
| 2002년 6월 | -0.5 | 2.6 | 2.8(3.1) | 9.4 | 12.5 | 13.5 | 6.76 | 784.3 |
| 7월 | -0.7 | 2.1 | 2.8(3.0) | 15.2 | 11.5 | 13.0 | 6.59 | 753.7 |
| 8월 | -0.1 | 2.4 | 3.0(3.2) | 9.8 | 10.7 | 12.4 | 6.23 | 713.2 |
| 9월 | 0.3 | 3.1 | 2.6(2.9) | 10.8 | 10.6 | 12.4 | 6.06 | 703.2 |
| 10월 | 1.0 | 2.8 | 2.8(3.1) | 15.4 | 11.6 | 12.5 | 6.01 | 642.2 |
| 11월 | 1.6 | 3.5 | 2.8(3.0) | 11.1 | 13.3 | 13.7 | 5.90 | 679.7 |
| 12월 | 2.3 | 3.7 | 3.1(3.0) | 22.8 | 14.1 | 13.3 | 5.88 | 699.8 |
| 2003년 1월 | 2.8 | 3.8 | 3.5(3.1) | 41.4 | 13.9 | 13.1 | 5.48 | 631.0 |
| 2월 | 2.8 | 3.9 | 3.7(3.0) | -5.6 | 13.3 | 12.5 | 5.25 | 591.6 |
| 3월 | 3.3 | 4.5 | 3.6(3.1) | -9.2 | 11.9 | 11.7 | 5.44 | 550.8 |
| 4월 | 1.9 | 3.7 | 3.3(3.2) | 8.0 | 10.3 | 10.2 | 5.39 | 585.9 |
| 5월 | 1.0 | 3.2 | 3.2(3.4) | 6.9 | 9.1 | 9.4 | 5.26 | 613.5 |
| 6월 | 1.1 | 3.0 | 3.3(3.6) | | 7.9 | 9.1 | 5.28 | 663.2 |
| 7월 | 1.6 | 3.2 | 3.4(3.6) | | | | 5.65 | 703.5 |
| 8월 | 1.9 | 3.0 | | | | | 5.87 | 731.7 |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평잔기중

산업활동

| 연월 | 산업생산 | | 수요관련지표 | | | | | | | | |
|------------|------|------------------|------------|-------------|--------------|------------|----------|----------|-------|------|----|
| | 전산업 | 평균 가동률 (%) | 도소매 판매액 | 소비재 출하4) | 국내기계 수주5) | 설비투자 주계 | 건설 수주 | 건설 기성 | 공공 | | 민간 |
| | | | | | | | | | 공공 | 민간 | |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
| 2000년 | 16.8 | 78.6 | 9.8 | 6.0 | 11.7 | 30.8 | 15.1 | -3.1 | -5.6 | -1.5 | |
| 2001년 | 0.7 | 75.3 | 6.6 | 2.8 | -1.0 | -2.3 | 22.1 | 10.0 | 4.4 | 14.6 | |
| 2002년 | 8.0 | 78.3 | 8.3 | 8.3 | 21.0 | 1.6 | 21.3 | 3.7 | -10.5 | 12.7 | |
| 2002년 6월 | 2.3 | 76.0 | 6.6 | 1.9 | 25.9 | -5.4 | 2.6 | 8.2 | -3.9 | 16.0 | |
| 7월 | 10.6 | 78.6 | 8.9 | 6.2 | 12.2 | -2.9 | 2.7 | 10.4 | 2.8 | 13.1 | |
| 8월 | 8.8 | 78.9 | 8.6 | 9.1 | 43.2 | 1.1 | 54.0 | -5.1 | -20.1 | 3.9 | |
| 9월 | 1.8 | 77.7 | 4.8 | -0.8 | 5.0 | 3.4 | -19.3 | -10.8 | -23.9 | -2.0 | |
| 10월 | 13.8 | 79.0 | 10.0 | 10.9 | 30.4 | 2.7 | 16.4 | 6.4 | -13.2 | 18.3 | |
| 11월 | 9.2 | 78.8 | 7.4 | 7.6 | 21.0 | 4.4 | 8.0 | 5.8 | -16.4 | 20.9 | |
| 12월 | 11.4 | 78.6 | 4.3 | 10.2 | 18.1 | 2.4 | 14.3 | 11.3 | -4.4 | 23.7 | |
| 2003년 1월 | 3.9 | 78.8 | 6.4 | 1.0 | 2.3 | -7.7 | 20.9 | 20.9 | 10.7 | 25.9 | |
| 2월 | 10.0 | 79.1 | 0.4 | -1.8 | 9.7 | -3.6 | 44.0 | 10.4 | -21.5 | 31.6 | |
| 3월 | 4.8 | 77.9 | -2.2 | -3.9 | -42.6 | 0.1 | -36.6 | 16.9 | -4.7 | 33.3 | |
| 4월 | 2.0 | 77.9 | -2.8 | -6.5 | -1.2 | -4.6 | 7.8 | 12.4 | -3.8 | 24.4 | |
| 5월 | -0.9 | 75.8 | -1.9 | -11.2 | 1.2 | -8.8 | 37.0 | 15.9 | 0.9 | 26.0 | |
| 6월 | 8.4 | 77.6 | -0.4 | -4.2 | -13.5 | 2.7 | 121.3 | 18.6 | 2.6 | 29.8 | |
| 7월 | 0.7 | 73.8 | -1.8 | -3.6 | -13.1 | -11.0 | 80.3 | 17.4 | 6.7 | 25.4 | |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3년 9월 21일

1판1쇄 발행/2003년 9월 2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 ~ 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